

“KIA 득점력 살아나려면 이명기가 살아야 한다”

시즌 초 ‘슬럼프’ 돌림병처럼 타자들 괴롭혀...최형우만 정상 컨디션

최근 김선빈·나지완 등 회복세 불구 유일하게 이명기만 안타 가뭄

이제 이명기만 남았다?
KIA 타이거즈의 공격력이 작년과 달라진 것은 응집력이다. 작년에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누가 성냥 불로 불을 피우면 집중 폭발하기 시작한다. 빅이닝이 많았다.
올해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득점권 타율도 작년보다 많이 약해졌다. 작년 3할 2푼5리(1위)에서 2할7푼5리로 떨어졌다.
더욱이 올해는 슬럼프가 돌림병처럼 타자들을 괴롭혔다. 이범호, 김선빈, 김주찬, 나지완, 버나디나, 이명기가 개막 이후 모두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작년 3할 타자 가운데 최형우와 안치홍만이 슬럼프가 없었다. 최근 안치홍이 사구에 골절상을 입고 빠지는 바람에 사실상 최형우만이 독자형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슬럼프를 겪었던 타자들이 모두 돌아오거나 회복 중에 있다는 점이다.
김선빈(.309)과 나지완(.301)은 어느새 3할 타율을 회복했다. 김선빈은 한때 2할대 초반에서 해냈으나 최근 급격한 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나지완은 지난 주말 2경기 연속 홈런과 멀티안타, 멀티타점을 쓸어들고 중심타자로 돌아왔다.
김주찬은 지난 주 2타석만에 안타를 생산하며 다시 뜨거운 안타 사냥꾼 모드로 돌아와 타율 3할4푼2리로 끌어올렸다.
10경기에서 1할7푼5리에 머물던 버나디나도 지난 22일 잠실 두산전에서 4안타를 터트리며 슬럼프 탈출을 예고했다.
현재 KIA의 개인별 공격지표에서 유일하게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는 이명기이다. 2할1푼8리, 8타점,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규정 타석 타자 가운데 타율 66위이다. 이명기보다 못한 타자는 LG 안익훈 한 명이 있다. 작년 타율 3할3푼2리의 지존심이 구겨졌다.
개막 3경기에서 12타수 5안타를 기록하며 작년의 활황세를 잇는 듯했다. 그러나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 안타에 가뭄이 들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할4푼5리에 그치고 있다. 출루율 2할9푼5리, 득점권 타율 1할에 불과하다.
타격의 절정기에 올랐다는 평가가 무색해졌다.
이명기가 밥상을 잘 차려주지 못하면서 팀 득점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다.
결국 팀 득점력이 살아나려면 이명기가 살아야 한다. 이제는



타격을 회복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타석이 가까워지고 있어 걱정 정도 커지고 있다. KIA 공격 지표에서 유일한 미생이다. 작년 훌륭한 모델이 있었다. 주장 김주찬은 작년 개막 초반 9타석까지 1할8푼6리에 그쳤다. 한때 1군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시즌 최종 타율 3할 9리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이명기가 김주찬처럼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주시 B팀 오태심(주장), 김순옥, 임정자, 임동순, 천도심, 여주자 선수 우승 시상식을 마치고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성료’

우승 여주시B팀 · 준우승 구례군A팀 · 3위 장흥A팀, 담양B팀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지난 24일 담양군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열렸다.
이날 전남도 후원으로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갑구)가 주관하여 선수 임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시군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날 각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 44개 팀 450여 명이 각축을 벌인 끝에 여주시 B팀 오태심(주장), 김순옥, 임정자, 임동순, 천도심, 여주자 선수가 구례군 A팀을 꺾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 했다.

매 경기마다 팀의 작전을 지시한 오태심(주장) 선수는 우승 소감에서 “우리 팀 선수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아무런 불평없이 꾸준히 땀흘려 연습에 임해 준 결과”라며 “팀과 호흡이 잘 맞아 오늘의 영광의 기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주시게이트볼협회(회장 박종완) 감독은 “여주시게이트볼팀이 지난 10일 전라남도협회장 여성기대회에 이어 이번 전남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까지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여

성기대회에 우승 소감에서도 말했다. 그동안 땀흘려 훈련을 해왔던 여주시 팀 선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며 참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경기를 마치고 시상식에서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장은 시상대에 올라와 “이런 시상식 처음 보았다.”며 “이런 시상식 못하겠다.”고 시상대(단상)를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집결해 있던 임상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관련기사 8면>

이흥재 기자

정현, 이번에는 발목 이상...바르셀로나오픈 단식출전 불투명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19위)이 클레이코트 시즌을 앞두고 발목에 이상이 생겼다.
정현의 매니지먼트사 IMG는 “남지프로테니스(ATP) 바르셀로나 오픈에 출전 중인 정현이 연습 도중 발목에 이상이 느껴 복식 출전을 포기했다”며 “2일 단식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마이애미 오픈을 마치고 일시 귀국한 정현은 클레이코트 시즌을 위해 지난 주 출국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오픈을 앞두고 포다시 발목에 이상을 느꼈다.
바르셀로나 오픈 단식 1회전을 부진성으로 통과한 정현은 세계랭킹 106위 비요른 프라판켈로(25·미국)와 2회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목 통증으로 출전 여부가 불

투명해졌다.
큰 부상은 아닌 듯하다. IMG 관계자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이번 대회 단식 출전을 포기하더라도 이번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프랑스로 오픈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 시즌을 부상없이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현의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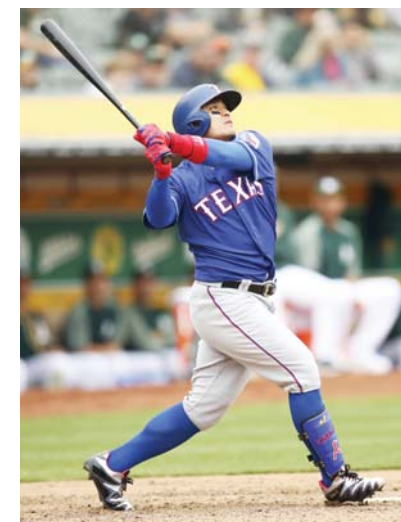
뉴시스

추신수 재시동, 오클랜드전 2안타 1득점...팀은 패배

타율 0.237서 0.250으로 끌어올려

잠시 숨을 고른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탬파베이 레이스전부터 23일 시애틀 매리너스전까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추신수는 전날 오클랜드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하루 만에 시즌 7번째로 멀티히트를 때려내며 타격감을 끌어올린 추신수의 타율은 0.237에서 0.250(96타수 24안타)으로 올랐다.
출발은 좋지 못했다.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맞은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 선발 앤드루 트릭스를 상대한 추신수는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 트릭스의 3구째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했다.
11의 균형이 이어지던 4회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트릭스의 3구째 무실 패스트볼을 노려쳐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뽑아냈

다. 추신수는 노마 마지라가 삼진, 애드리안 벨트레가 병살타로 물러나 더 이상 진투하지 못했다.
6회초 마이크 칸하에 우중월 솔로포를 허용해 오클랜드에 선취점을 내준 텍사스는 이어진 공격에서 반격에 나섰다.
4회 1사 후 델라노 드실즈가 내야안타를 쳤고 뒤이어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섰다. 추신수는 트릭스의 초구 체인지업에 몸을 맞아 출루했다. 트릭스의 폭투로 드실즈와 추신수는 한 투석 진투했다. 텍사스는 마지라가 볼넷을 골라내 이어간 1사 만루에서 벨트레가 희생플라이를 쳐 동점을 만들었다. 벨트레의 희생플라이 때 3루까지 나아간 추신수는 후속타자 조이 갈로가 2루수 땅볼로 물러나 득점에 실패했다.
7, 8회 오클랜드에 1점씩을 내주고 끌려가던 텍사스는 8회 1점을 만회했다.
추격의 발판을 놓은 것은 추신수다. 8회 1사 후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상대 구원 블레이크 트레이넨의 초구 싱커를 노려쳤고 타구는 투수를 맞고 굴절돼 1루수 쪽으로 굴러가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다. 추신수는 벨트레의 우전 적시타



로 홈을 밟아 텍사스의 2-3 추격을 이끌었다. 추신수의 활약에도 텍사스는 9회 추가점을 내는데 실패해 2-3으로 졌다.
마무리 투수 트레이넨이 추신수의 타구에 맞아 급히 루 트리비노를 투입한 오클랜드는 트리비노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리드를 지켰고 9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산티아고 카시아가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책임져 1점차 승리를 챙겼다.
2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17패째(8승)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박태환 “내 경쟁력 키우는게 우선...이쉬움 달라고파”

내일부터 광주서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9·인천시청)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7일부터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센터에서 열리는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를 위해 24일 귀국했다.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이날 귀국한 박태환은 “강도가 있는 훈련을 하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선발전은 훈련 과정의 중간 포인트다. (결과에 따라) 선발전 이후 훈련 강도와 페이스를 정할 것이다”고 했다.
올해 1월 초 일본 오사카에서 훈련을 시작한 박태환은 같은 달 중순 호주 시드니로 가 훈련을 이어갔다. 이번 선발전은 박태환의

2018년 첫 공식대회다. 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박태환은 “이번 아시안게임은 내게 중요한 시합이다. 기록이 좋으면 메달은 좋은 색으로 따라 온다고 생각한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고 했다.
이어 “다른 후배들과 좋은 팀을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도 했다.
1989년생 우리나라로 서른인 박태환은 작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노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자유형 400m에서 4위에 오르는 등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박태환은 “세계대회 직전 로마 대회 때보다 나아진 것이 유지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는 아쉬움을 달라고 싶다”고 했다.
박태환은 선발전에서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등 4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뉴시스